

웨슬리의 구약 예언서 해석에 나타난 종말론 이해 —에스겔 36장 16-38절을 중심으로 *

홍성혁

(서울신학대학교, 구약학)

한글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예언적 종말론을 담고 있는 본문으로 분류되는 에스겔 36장 16-38절에 대한 주석을 토대로 예언적 종말론의 특성을 분석할 뿐만 아니라 이 본문에 대한 웨슬리의 해석과 비교함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주는 종말론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데 있다. 에스겔 36장 16-38절에 대한 웨슬리의 해석은 웨슬리의 구약성서 주해서(Explanatory Notes upon the Old Testament)에 근거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웨슬리의 구약성서 주해서에 근거하여 에스겔 36장 16-38절과 같은 종말론 본문에 관한 주석과 그 의미에 관한 비교 연구가 시도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구약성서 종말론의 특징적인 요소와 웨슬리의 종말론적 이해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본 연구는

* 이 논문은 서울신학대학교 2019학년도 연구년의 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충분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먼저 구약성서의 종말론의 특징에 관하여 분석하면서 종말론이 크게 예언적 종말론과 묵시적 종말론으로 나뉘는 것을 제시할 것이다. 묵시적 종말론은 죽음 이후의 세계와 보상 문제와 같이 저 세상의 문제에 일차적인 초점을 두는 데 반하여, 예언적 종말론은 저 세상에서의 보상 문제보다 현 세상에서의 속죄와 같은 문제에 관심을 둘을 말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예언적 종말론으로 분류되는 에스겔서 36장 16-38절에 대한 주석을 통해 예언적 종말론에서 말하는 구원의 주요 특징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땅을 더럽힌 폭력과 우상숭배와 같은 죄로 인해 이스라엘에 대하여 야훼께서 분노를 쏟으셨음을 말할 것이다. '새 영'이 역사하는 새 시대에는 야훼의 심판으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로 인해 야훼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진 부정현실을 극복하고 구원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야훼가 주도적으로 개입하셨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에스겔에서 새 시대에 이루어질 구원 약속의 내용을 일곱 가지로 밝히고 있음을 말하고자 한다. 야훼께서 '새 영'의 역사를 통하여 내면적인 죄와 우상숭배와 폭력 같은 외면적인 죄를 제거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비록 웨슬리가 공동체보다 개인 차원의 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지라도, 자신의 에스겔 주해에서 죄의 제거, 곧 영적인 회복을 기독교적 관점에 근거하여 성화로 풀어낸다. 악한 행실은 물론 내면의 죄된 욕망까지도 제거되는 상태와 연결시킨다. 또한 에스겔이 회복을 위해 야훼가 주도적으로 개입함을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웨슬리는 성화의 과정에 인간의 성숙이나 진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중심적인 역할을 함을 밝히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이 종말론적 회복이 하나님의 주도적 개입과 인간의 참회에 의해 실현되는 신인협동의 과정임을 강조한 것과 마찬가지로, 웨슬리도 성화의 과정에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필수적임을 말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에스겔이 말하는 구원은 저 세상이 아닌 이 세상에서의

공동체적, 개인적 회복을 가리킨다. 웨슬리도 성화가 저 세상에 가서야 성취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시작되어 점진적인 과정을 통하여 성취됨을 말한다. 끝으로, 에스겔은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자연적 차원의 회복과 같은 거시적인 차원의 회복에도 관심을 두었음을 말하고자 한다. 에스겔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의 회복을 말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회복은 땅과 인간,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회복을 포함했음을 말하고자 한다. 이는 웨슬리가 말하는 성화가 사회적 인 차원으로 나아가야 함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본 연구는 공동체와 개인이라는 간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구약성서의 일반적인 예언적 종말론과 웨슬리의 종말론적 해석 사이에는 상당한 일치 있음 확인함으로써 예언서에 대한 웨슬리의 종말론적 해석의 지평을 새롭게 인식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I. 들어가는 말

구약성서 예언서에서 말하는 종말론은 무엇일까? 웨슬리는 예언서의 종말론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둘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 이런 물음을 던지며 구약성서 예언서에 나타난 종말론, 곧 예언적 종말론에 관하여 알아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구약성서예언서에 나타난 종말론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내린 정의에 근거하여 일반적으로 종말론적 본문으로 간주되고 있는 에스겔 36장 16-38절이 저 세상 차원, 곧 사후 세계에서의 보상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목시적 종말론’과 달리 ‘예언적 종말론’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말할 것이다.¹⁾ 그런 다음에, ‘예언적 종말론’의 특성을 분석하고 그런 특성이

에스겔 36장 16-38절에 대한 본문 주석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웨슬리가 동일 본문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의 구약성서 주해서 Explanatory Notes upon the Old Testament에 근거하여 분석한 다음에 앞에서 언급한 ‘예언적 종말론’의 특성과 비교하며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도출할 것이다. 본문의 편집과 통일성에 관한 논란이 있지만,²⁾ 여기서는 웨슬리의 본문에 대한 종말론적

-
- 1) Donald E. Gowan, *Eschatology in the Old Testament* (Edinburgh: T. & T. Clark, 1987), 1-2, 64-65, 70-80; G. W. E. Nickelsburg, “Eschatology (Early Jewish)”, *ABD* 2 (1992), 580-581; E. Jenni, “Eschatology of the OT”, *IDB* (1962), 130; Henning Graf Reventlow, “The Eschatologization of the Prophetic Books: A Comparative Study”, in *Eschatology in the Bible and in Jewish and Christian Tradition*, ed., Henning Graf Reventlow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7), 183.
- 2) 학자들에 의해 에스겔 36장 16-38절의 편집 작업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시도되었지만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H. Simian, *Die theologische Nachgeschichte der Prophetie Ezechiels* (Würzburg: echter Verlag, 1974), 88-103; Karl-Friedrich Pohlmann, *Ezechielstudien: Zur redaktionsgeschichte des Buches und zur Frage nach den älteren Texten* (Berlin: de Gruyter, 1992), 77-87; Walther Zimmerli, *Ezekiel 2: A Commentary on the Book of the Prophet Ezekiel Chapters 25-48*, trans. James D. Martin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3), 244-245. 렌즈(Thomas Renz)도 신탁(겔 36:22-32)과 두 개의 짧은 예언(겔 36: 33-36, 37-38)과 간략한 이스라엘 역사 회고(겔 36: 16-21)의 모음집임을 밝히면서 편집의 가능성을 제기한다. T. Renz, *The Rhetorical Function of the Book on Ezekiel* (Leiden: Brill Academic Publishers, 2002), 110-13. 반면에, 레벤트로우(H. G. Reventlow)와 할스(R. M. Hals)는 에스겔 36장 16-38절의 통일성의 가능성을 인정한다. Reventlow, “The Eschatologization of the Prophetic Books”, 183; Ronald M. Hals, *Ezekiel*, vol. 19 (FOOTL; Grand Rapids: W. B. Eerdmans, 1989), 263. 스위니(Marvin Sweeney)는 본문의 통일성에 대하여 좀 더 긍정적이다. 에스겔 36장 16-38절을 예언수령 공식으로 시작하는 에스겔 36장 16절부터 환상보도문인 37장 1-14절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전제로서 땅의 정화를 주제로 하는 통일성이 있는

해석과 그 특성에 집중하기 위하여 본문의 통일성에 대한 세밀한 논의는 제외하기로 하겠다.

II. 예언서에서의 종말론 정의와 특성

종말론은 세상과 역사의 ‘마지막에 관한 가르침’을 뜻한다. ‘마지막’이란 말 속에는 미래에 발생할 세상과 역사의 궁극적 완성이란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러므로 종말론은 미래에 도래할 세상과 역사의 궁극적 완성에 관한 가르침을 뜻한다. 세상과 역사가 완성되는 미래는 그때까지 존재한 세상과 역사와의 단절을 의미한다. 이는 모빙켈(S. Mowinckel)에 의해 뒷받침 된다. 모빙켈은 종말론이 현재의 세상 질서와 상태가 갑자기 종결되고 본질적으로 다른 질서나 상태에 의해 대체되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본다.³⁾ 만약 종말론에서 말하는 세상과 역사의 궁극적 완성이 현재의 세상 질서와 절대적으로 단절된 저 세상의 질서를 가리킨다면, 구약성서, 특히 예언서 안에서는 이를 발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레벤토로우(H. G. Reventlow)는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세상의 끝에 관한 종말론 사상은 구약성서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까지 말한다.⁴⁾ 사후 세계와 죽음

두 단락, 즉 에스겔 36장 16-38절과 37장 1-14절 중의 하나로 간주한다. 에스겔 37장 1-14절은 마른 뼈 환상을 통한 땅의 정화에 초점을 두는 반면에, 에스겔 36장 16-38절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땅의 정화에 초점을 두는 예언으로 본다. M. Sweeney, *Reading Ezekiel: A Literary and Theological Commentary* (Smyth & Helwys Publishing, [Amazon e-book, 2013]), Loc 3464-3554, accessed 31 July 2019.

3) S. Mowinckel, *He that Cometh*, trans. G. W. Anderson (New York: Abingdon Press, 1954), 125.

이후의 보상 문제를 취급하는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세상 끝에 관한 종말론 사상은 묵시와 연관이 있다. 그런 점에서 구약성서 안에서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묵시는 찾기 어렵다는 뜻이다.⁵⁾

러셀(D. S. Russell)은 묵시가 예언에서 발전 또는 변형되었을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묵시와 예언은 구분된다고 말한다.⁶⁾ 이는 묵시와 예언의 특징인 종말론 사상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러셀은 묵시적 종말론과 예언적 종말론을 구분하면서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세상 끝, 곧 초역사와 초월적 시간으로의 진입에 관한 사상은 묵시적 종말론의 특징이라고 말한다.⁷⁾ 예언서와는 달리, 묵시문학은 시간 내, 곧 역사적 지평에서의 심판이 아니라 시간과 역사 저 너머에 설정된 상황 속에서의 심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본다. 반면에, 예언문학

4) Henning Graf Reventlow, "The Eschatologization of the Prophetic Books", 170.

5) 사실, 구약성서 안에서 전형적인 묵시 장르에 해당하는 책은 다니엘서가 유일하다. 그러나 다니엘서의 묵시 사상은 기원에 있어 예언과의 연관성을 전제할 뿐만 아니라 묵시만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역사의 종말을 담고있기에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묵시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묵시에서는 역사의 종말을 지적하지 않은 채 죽은 뒤에 개인을 심판하는 예도 나타난다. D. S. 러셀, 『하나님의 계시: 유대 묵시문학 개론』, 홍성혁 옮김 (서울: 제라서원, 2012), 44; 존 J. 콜린스, 『묵시문학적 상상력: 유대 묵시문학 입문』, 박요한 영식 옮김 (서울: 가톨릭 출판사, 2006), 38. 구약성서의 묵시 장르에 속한 책들에 나타난 묵시 사상의 특징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Stephen L. Cook, *The Apocalyptic Literature* (Nashville: Abingdon Press, 2003); *Prophecy & Apocalypticism: The Postexilic Social Setting*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6) D. S. Russell, *The Methods & Message of Jewish Apocalyptic: 200 BC - AD 100*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4), 92.

7) Russell, *The Methods & Message of Jewish Apocalyptic*, 95; 홍성혁, "요엘4장의 묵시적 종말론 모티프와 그 기능: 아훤의 시온 통치를 통한 새 세상 도래 부각", 『구약논단』 52 (2014): 186-216.

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현재의 세상 질서 속에 개입하여 승리를 실현시키는 것을 말한다.⁸⁾ 이처럼 종말론은 초세상과 초역사로의 변화를 전제하는 묵시적 종말론과 역사 내의 변화를 전제하는 예언적 종말론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세상의 차원에서 다가오는 세상의 차원으로 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묵시적 종말론의 특성에 대해 러셀은 린드블롬이 말한 내용⁹⁾에 우주 속에서의 악의 기원과 천사의 개입, 빛과 어둠 사이의 대결, 하나님과 사탄, ‘인자’라는 초월적 인물의 등장, 사후 삶에 대한 믿음과 지옥과 낙원, 개인 부활 등의 요소를 추가시킨다.¹⁰⁾ 이 세상과 저 세상, 하나님과 사탄, 빛과 어둠이란 개념에서 보듯이, 묵시적 종말론에서 전체를 아우르는 중요한 개념은 이원론 사상이다. 자연과 초자연, 시간과 공간을 분리시킬 뿐만 아니라 두 시대, 곧 ‘현 시대’와 ‘도래할 시대’를 구분한다. 특히, 서로 구분되는 두 시대 사상은 묵시적

8) Russell, *The Methods & Message of Jewish Apocalyptic*, 95

9) 린드블롬(J. Lindblom)은 묵시의 특징에 다음 요소를 포함시킨다: 초월주의, 우주론적 전망, 비판적 역사관, 이원론, 시간을 시대별로 도식적 구분, 두 시대에 관한 가르침, 수비학, 가상 황홀경, 인위적인 영감 주장, 익명성, 비밀주의 등. J. Lindblom, *Die Jesaja-Apokalypse Jes. 24-27* (Hakan Olssons Buchrukere, 1938), 101f. 콜린스는 예언적 종말론과 묵시적 종말론의 명백한 차이를 죽은 뒤의 보상의 문제에 대한 언급 유무에서 찾는다. 예언적 종말론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콜린스, 『묵시문학적 상상력: 유대 묵시문학 입문』, 29-30. 러셀은 예언적 종말론과 묵시적 종말론의 주요 차이를 구원과 연관시켜 설명한다. 예언적 종말론에서는 구원을 공동체 차원에서 인식하는 반면에, 묵시적 종말론에서는 개인 차원에서 인식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전자가 지상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초점을 두는 반면에, 후자는 지복의 초월 세계에 초점을 둔다고 본다. 러셀, 『하나님의 계시: 유대 묵시문학 개론』, 44.

10) D. S. Russell, *The Methods & Message of Jewish Apocalyptic*, 특히 104-139를 보라.

종말론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언적 종말론의 특징이기도 하다. 그러나 두 시대 사상과 연관하여, 자연과 초자연의 구분을 통해 두 세상을 대조하는 묵시적 종말론과는 달리, 예언적 종말론에서는 역사 내의 두 시대 사이에 발생하는 변화를 강조한다.¹¹⁾

‘현 시대’와 ‘도래할 시대’ 사이의 구분은 예언서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표현에 잘 드러난다. “날들이 오고 있다”는 표현은 새 시대에 이루어질 변화와 연관이 있다. 예레미야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어구인 “날들이 오고 있다”는 옛 언약과 구별되는 새 언약의 시대와 연관이 된다(렘 31:37, 31, 38).¹²⁾ 율법 준수의 책임을 인간 의지에 맡겨놓았던 옛 언약의 시대가 실패로 돌아갔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율법을 준수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새 언약의 시대가 열릴 것임을 말한다. 이사야에 나타나는 “말일에”라는 표현은 현재의 불의한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이 시온에서 임재하여 주신 가르침과 심판에 의해 우주적 평화가 열릴 새 시대를 상징한다(사 2:2-4). 아모서 9장 11절에 나타나는 “그 날에”는 사회적 불의와 예배 형식주의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대적에 의해 패배를 겪은 이스라엘이 다윗 왕조의 이름 아래 우주적인 통치권을 회복하게 되는 새 시대를 가리킨다. ‘새 시대’와 연관된 이 표현들은 모두 현재 역사와 구별되는 다가오는 시대를 말한다. 현재의 질서와 역사를 변화시켜 새로운 질서와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을 전제한다. 새 질서는 역사 내에서 현재와 단절된 새 시대의 시작을 말한다.

예언적 종말론이 역사 내에서의 현 시대와 다가오는 시대 사이의

11) Reventlow, “The Eschatologization of the Prophetic Books”, 171.

12) 예레미야의 ‘새 언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보라. 홍성혁, “예레미야 31장 23-40절에 나타난 새 언약과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일 이상”, 『선교와 신학』 46 (2018): 4514-83.

변화를 전제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떤 상태로의 변화를 말하는 것일까? 일반적인 차원에서 그 대답은 심판과 구원의 차원에서 언급할 수 있다. 도래할 시대에 현 시대의 죄된 상태를 심판함으로써 발생하는 변화, 곧 회복을 가져온다. 죄로부터 자유한 상태로의 변화, 곧 이 세상 속에서 구원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고웬(Donald E. Gowan)은 구약의 종말론, 곧 예언적 종말론의 특성을 네 가지 관점에서 설명한다.¹³⁾ 첫째, 저 세상이 아닌 이 세상 속에서의 희망을 말한다. 이 세상 속에서의 인간의 변화와 경험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뜻이다. 둘째, 종말의 희망(새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희망은 근거를 인간의 진보가 아닌 하나님의 개입에 둔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책임을 수동적인 것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희망을 이루는 과정에서 인간의 참여가 필요하며, 특히 회개는 필수적이다. 인간 스스로 희망을 만들 수는 없지만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는 있다. 셋째, 개인적 구원보다 공동체적 구원을 강조한다. 개인의 구원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인간의 완전한 삶은 공동체적 삶 속에서 규정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넷째, 인간 사회의 건강한 삶은 자연계와의 건강한 상호작용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개인이 구원받겠다고 해서 자연과 사회의 문제가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¹⁴⁾

이렇게 볼 때, 예언적 종말론은 두 시대, 곧 현 시대와 다가올 시대의 차별성을 부각시킨다. 물론, 다가올 시대는 역사 속에서의 새 일, 이 세상 속에서의 새로운 변화를 가리킨다. 이 변화는 인간의 의지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에 의해 성취될

13) 고웬은 구약의 종말론을 묵시적 종말론이 아닌 예언적 종말론의 관점에서 다룬다. Gowan, *Eschatology in the Old Testament*, 1-2.

14) 앞의 책, 122-123.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인간의 책임과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 신인 협동의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개입, 곧 은혜를 가져오기 위하여 인간 편에서 회개와 순종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그렇다고해서 개인 구원이 사회 구원의 토대라고 보지 않는다. 개인 구원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공동체 차원의 회복과 구원을 강조한다.¹⁵⁾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개인적인 해결책 이상의 공동체 차원에서의 구원을 중요시 한다. 구약 예언서의 종말론에서 말하는 이런 특성이 웨슬리가 예언서에서 나타난 종말론 해석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자.

III. 에스겔 36장 16-38절에 대한 웨슬리의 해석에 나타난 종말론

에스겔 36장 16-38절은 희망과 위로의 신탁(겔 33-48장) 내에 위치하고 있다. 열방에 대한 심판 신탁(겔 25-32장) 다음에 위치하여 미래에 이루어질 회복을 내다보고 있다. 에스겔 33장에서 예루살렘 멸망의 소식을 접한 에스겔이 다시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에 나서게 됨을 말한 후에, 야훼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흩어진 양떼를 모으는 역할을 한다(겔 34장). 그런 후에 야훼의 땅을 회복시키실(겔 35:1-36:15) 뿐만 아니라, 야훼의 명예를 회복시키신다(겔 36:16-38). 이어 마른 뼈 골짜기의 이상(겔 37장)을 통해 야훼의 말씀과 영의 역사로 인해 야훼의 백성과 언약이 회복됨을 말한다.

15) 각주 7에 제시된 러셀의 견해도 참조하라.

본 연구의 초점인 에스겔 36장 16-38절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에스겔 36장 16절에서 예언 수령 공식인 “~라는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로 시작하고, 곧 이어 수령자인 “인자”의 부름이 새 신탁의 시작을 알리기 때문에 새로운 신탁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에스겔 36장 16-38절을 인지공식(“그들이 내가 야훼인 줄 알리라”)으로 끝을 맺는다. 더구나 본 단락 다음에는 야훼 백성의 부활과 회복을 말하기 위해 ‘야훼 계시의 손 공식’(겔 1:3; 3:22; 8:1; 33:22; 37:1; 40:1), 곧 “야훼의 손이 내게 임했다”(겔 37:1)로 시작되기 때문에 겔 36장 16-38절을 겔 37장과 구분하여 하나의 본문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에스겔 36장 16-38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야훼의 명예가 야훼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의 정결, 곧 죄에서 자유한 회복을 이룸을 말하는 새 언약 단락이다. 죄악에서 정결하는 하는 날(겔 36:33), 곧 종말에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인하여 인간에게 새 마음을 입히고 죄를 정화시킨다는 회복 주제가 현 시대와 구별되는 다가올 시대를 내다보는 예언적 종말론의 특성에 잘 부합된다. 이는 새 시대에 하나님의 주도적 은혜에 의한 영적 회복과 사회적 회복을 강조하는 웨슬리의 종말론과 비교하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본문인 에스겔 36장 16-38절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단락(겔 36:16-23)은 다가오는 새 시대에 이루어질 회복의 근거가 무엇인지 밝힌다. 둘째 단락(겔 36:24-32)은 새 시대에 이루어질 회복의 일곱 가지 요소가 무엇인지를 밝힌다. 셋째 단락(겔 36:33-38)은 회복의 결과로서 누리게 될 혜택이 무엇인지를 압축적으로 소개한다.

1. 새 시대에 이루어질 구원 예언과 그 근거(겔 36:16-23)

16절은 예언 수령 공식(“~라는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로 시작한다. 예언의 표면적인 수령자는 “인자”(17절)다. “인자”는 예언자를 가리킨다. 그러나 예언자는 메시지의 전달자이지 수령자가 아니다. 22절을 감안할 때, 궁극적인 수령자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수령자인 ‘이스라엘 백성’을 3인칭으로 지칭하고 있어서 야훼께서 중재자인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시는 말씀이다. 17절은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한 근거, 곧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밝힌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는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 거주할 때에 어떤 행위를 통하여 땅을 더럽혔다는 뜻이다. 18절에서는 그 행위를 피를 흘린 폭력과 우상숭배와 연관시킨다(겔 22:4).

에스겔은 자신의 제사장 신학에 의거하여 땅을 더럽힌 폭력과 우상숭배를 제의적 부정을 가리키는 은유로 표현하여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17절)에 빗대어 말한다.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은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여인과 접촉한 남자도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다(레 15:19-26). 속죄제와 번제를 드림으로써 부정을 씻어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한다(레 15:31).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에 비유된 부정한 땅, 곧 피를 흘리는 폭력과 우상숭배를 저지른 땅은 그 거주민이 땅에서 쫓겨나는 원인이 된다(19절; 레 18:25). 구약성서에서 ‘부정’(툼아/טומא)은 이방 제단에 대한 논쟁 맥락에서 등장하기도 한다.¹⁶⁾ 때때로 부정은 죄와 동일시 되기도 하는데,¹⁷⁾ 웨슬리는 부정 때문에 땅에서

16) G. André, “tame; tum'a”, *TDOT* 5 (1986), 331.

쫓겨나는 것을 모종의 큰 죄 때문에 공동체와 단절되는 것으로 보면서 죄와 연관시킨다. 웨슬리가 주장하는 모종의 큰 죄에는 행위는 물론 태도와 발언까지 포함된다¹⁸⁾ “부정”의 문제를 보다 더 포괄적인 죄의 측면에서 다룬다. 이는 웨슬리의 종말론과 밀접하게 연관된 완전 성화 개념에서 비롯된다.¹⁹⁾ 성화는 악한 행실 차원을 넘어 내면의 죄된 욕망까지도 제거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²⁰⁾

18-19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들의 부정을 씻어내지 않았기에 심판을 내렸음을 말한다. 18절에서 야훼께서 자신의 분노를 쏟았음을 거론하면서, 19절에서 그 분노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 나라에 흩어버린 사태임을 거론한다(겔 12:15; 20:23). 20-21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여러 나라로 쫓겨남으로써 초래된 결과가 무엇인지 언급한다. 첫째, 야훼의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졌다. 둘째, 야훼께서 자신의 이름이 더러워진 사태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하였다. ‘관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말’(חַמַּל)은 ‘동정’이나 ‘공혹’을 뜻하기도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이 포로로 사로잡혀 가는 것에 대하여 동정을 베푸시지 않으신 야훼께서(겔 5:11; 7:4) 자신의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진 사태에 대해서는 동정을 느끼신다.²¹⁾ 여기서 ‘동정’

17) G. André, “tame; tum’a”, 332.

18) John Wesley, *Explanatory Notes upon the Old Testament* (Salem: Schmul Publishers, 1975), 2384.

19) 로달(Michael Lodahl)은 종말론이 완전 성화의 핵심이라고 말한다. Michael Lodahl, *God of Nature and of Grace* (Nashville: Kingswood Books, 2003), 174.

20) 오톤 와일리, 폴 킬벗슨, 『웨슬리안 조직신학』, 전성용 옮김 (서울: 도서출판 세복, 2002), 384; 문병구, “존 웨슬리의 『기독자의 완전에 대한 해설』에 나타난 완전성화의 성서적 기초”, 『신학과 선교』(2018), 141.

21) Moshe Greenberg, *Ezekiel 21-37* (AB; New York: Doubleday, 1997), 729.

은 사태 해결을 위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뜻한다. 웨슬리도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과 단절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대한 동정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²²⁾

22-23절에서는 구원 예언을 선포하면서 구원을 베푸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럽혀진 야훼의 이름”과 “야훼의 이름의 거룩함을 나타내려”는데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23절에서 더럽혀진 야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부정을 저지른 이스라엘의 형편과 무관하게 은혜를 베풀어 부정한 이스라엘의 거룩을 위해 개입하실 것임을 뜻한다. 여기서 ‘거룩하게 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키데쉬’(קִדְּשׁ)는 웨슬리가 말하는 죄인을 ‘성화시키다’와 동일하다.²³⁾ 비록 일차적으로 이스라엘을 위로하려는 뜻이 아니라²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주신 메시지이지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성화시키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주도적으로 개입하실 것임을 말한다. 이는 웨슬리가 종말에 인간이 놓여 있는 전체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²⁵⁾

22) Wesley, *Explanatory Notes upon the Old Testament*, 2384-85.

23) 앞의 책, 2385.

24) Daniel I. Block, *The Book of Ezekiel Chapters 25-48* (NICOT;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8), 352.

25) Thomas C. Oden, *John Wesley's Teachings*. vol. 2: Christ and Savation (Grand Rapids: Zondervan, 2012), 282.

2. 새 시대에 이루어질 구원 약속의 내용(겔 36:24-32)

본 소단락은 야훼께서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새 시대에 성취할 일곱 가지의 구원에 관한 약속을 언급한다. 첫째, 24절에서는 구원을 새 출애굽의 관점에서 해석한다.²⁶⁾ 포로로 사로잡혀 간 열국으로부터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는 것을 새 출애굽으로 간주한다. 새 출애굽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먼저, 열국으로부터 데리고 나오고 온 땅으로부터 모은다. 평행되는 ‘열국’과 ‘온 땅’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복수형인 ‘열국’과 ‘땅’을 수식하는 ‘온’에 초점을 둔다면, 우주적인 차원의 종말론적 상황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콜’은 포로가 종식되고 새 시대가 우주적인 차원에서 임하고 땅과 백성이 재결합하는 종말론적인 상황을 가리킨다.²⁷⁾ 포로가 종식되고 귀환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본문의 시대적 배경을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 페르시아 시대로 볼 수 있다. 우주적인 차원을 고려할 때, 본문에서 의미하는 포로 귀환은 주전 722년에 멸망한 북 왕국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앗시리아와 주전 587년에 멸망한 남 왕국 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²⁸⁾ 야훼께서는 새 출애굽 모티브를 통해 바벨론은 물론 그 이전에 끌려간 앗시리아로부터 남북 왕국의 포로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통합 공동체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다. 고웬은 통합 이스라엘으로서의 새로운 지위를 말하는 이 구절을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규정하는 새 언약의 28절과 땅과 사람의 회복을

26) Block, *The Book of Ezekiel Chapters 25-48*, 353.

27) Lamar Eugene Cooper, Sr., *Ezekiel*, vol. 17 (NAC;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4), 316.

28) 앞의 책, 316.

말하는 33-36절과 함께 묶어 종말에 일어날 현상으로서의 인간 사회의 변화와 연관시킨다.²⁹⁾ 종말론적 현상으로서 공동체적 삶의 회복을 강조한다. 웨슬리 또한 기독교를 ‘사회적 종교’로 지칭하며 이웃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모든 형태의 신비주의를 배격하였다. 웨슬리는 완전한 사랑은 사회적 관계와 변화에 근거할 때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고 보았다.³⁰⁾

둘째, 25절에서는 야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야훼 스스로가 베풀 구원을 ‘뿌림’과 ‘씻음’의 차원에서 거론한다. ‘뿌림’을 뜻하는 ‘자라크’(צָרַק)와 ‘씻음’을 뜻하는 ‘타헤르’(טָהַר)는 제의적인 단어 들이다. 이 단어들을 함께 사용한 것은 제사장의 정결 의식과 피 뿌림 의식을 동시에 말함으로써 부정은 물론 죄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고자 하는 뜻을 말해준다. 24절의 새 출애굽 모티프가 공동체 차원의 회복 약속이라면, 25절의 ‘씻음’은 26-27절에서 각 자의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감안할 때 개인 차원의 영적인 회복 약속으로 볼 수 있다. 개인적 차원의 부정을 씻어내는 것을 말한다.³¹⁾ 그린버그(Moshe Greenberg)는 이 부정을 17-18절에 제시된 부정과 같은 종류로 분류한다. 그러면서 25절에 사용된 용어들은 죽은 사람의 몸을 접촉한 결과로 유발되는 부정을 씻어내기 위해 몸이나 물건에 물을 뿌리는 의식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동일함을 말한다(민 19:13,

29) Gowan, *Eschatology in the Old Testament*, 2, 21-58, 122-23.

30) Colin W. Williams, *John Wesley's Theology Today: A Study of the Wesleyan Tradition in the Light of Current Theological Dialogue* (Nashville: Abingdon Press, 1960), 194-96. 웨슬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최형근,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에서 본 존 웨슬리의 선교신학”, 『신학과 선교』 43(2013), 142.

31) Williams, *John Wesley's Theology Today*, 2, 74, 96.

20).³²⁾ 여기서 부정은 18절을 감안할 때, 우상숭배는 물론 유혈 폭력과도 연관이 있다. 33절에 언급되고 있는 ‘죄악’(아오노트/*mw*)이 윤리적 성격을 지님을 감안할 때, 넓은 의미에서 윤리적 타락을 의미할 수 있다.³³⁾ 이같은 부정을 씻어내는 것은 원래 제의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야훼께서 주도적으로 개입하여 윤리적인 죄를 포함한 죄를 씻어냄으로써 야훼와 그의 백성 사이의 영적인 관계 회복을 이루는 것을 말하며, 내적인 회개가 동반되는 것을 전제한다.³⁴⁾ 죄에서 자유한 종말론적 이상이 야훼의 주도적인 개입에 의한 미래이긴 하지만 이 세상의 역사 안에서 가능함을 말하고자 한다.³⁵⁾

웨슬리는 이 같은 개념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해석한다. 제의적인 ‘뿌림’을 사람의 양심에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것과 온 영혼에 성령의 은혜를 뿌리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이 ‘뿌림’의 목적을 인간의 죄와 타락할 수 있는 경향성과 그 기질을 제거하고 정화시키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³⁶⁾ 이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죄와 부패성에서 벗어나는 전형적인 성화의 개념에 부합된다. 에스겔에 언급된 야훼의 주도적 개입에 의한 죄 씻음을 통한 회복은 웨슬리의

32) Greenberg, *Ezekiel 21-37*, 730.

33) 앞의 책, 730. 흔히 ‘죄악’으로 번역되는 ‘아온’의 복수형인 ‘아오노트’의 윤리적 성격(예, 창 4:13; 15:16; 출 20:5; 34:9; 민 14:34)에 관해서는 밀그롬(J. Milgrom)을 참조하라. Jacob Milgrom, *Leviticus 1-16* (AB; New York: Doubleday, 1991), 25.

34) Cooper, *Ezekiel*, 316.

35) 장기영은 웨슬리가 이 같은 성화가 신자의 본성을 변화시키고 의의 동력을 일으키게 하는 신자 자신의 능동적 의에 의한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고 말한다. 장기영, “자유의지와 노예의지, 그 분기점으로서 웨슬리의 선행은총론”, 『신학과 선교』 45(2014), 152.

36) Wesley, *Explanatory Notes upon the Old Testament*, 2385.

그리스도와 성령의 주도적 역사에 의한 성화와 다를 바 없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에스겔서의 ‘씻음’이 이 세상의 역사 안에서 체험될 수 있다고 보기에 종말론적 이상을 이 세상에서 미리 맛볼 수 있다고 본 웨슬리의 시각과 동일하다. 웨슬리는 종말론적 이상을 끝날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현재적 관점에서 보려고 하였다. 그렇기에 죄 씻음을 통한 성화가 이 세상에서 시작되며 상대적 관점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완전도 이 세상에서 가능하다고 보았다.

셋째, 26-27절에서는 구원이 새 창조로 간주된다. 새 창조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킴으로써 발생한다. 먼저,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곧 새 마음으로 변화됨을 말한다. “굳은 마음”은 ‘레브 하에벤’(לבן אבן/돌같은 마음)인 반면에, “부드러운 마음”은 ‘레브 바사르’(לבן אבן/살의 마음)이다.³⁷⁾ “굳은 마음”은 딱딱한 돌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완고하고 고집센 마음을 말한다.³⁸⁾ 악한 성향을 뜻할 수도 있다.³⁹⁾ 반면에,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순종하는 마음을 가리킨다.⁴⁰⁾ 이는 예레미야가 말한 새 언약의 핵심이기도 하다(렘 31:31-34). 하나님의 주도로 다른 누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능동적으로 반응하여 변화를 추구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약속하신다.⁴¹⁾

37) 여기서 ‘살’을 가리키는 ‘바사르’는 헬라 사상에 나타나는 것처럼 ‘영’을 뜻하는 ‘루아흐’와 대조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38) Block, *The Book of Ezekiel Chapters 25-48*, 355.

39) Zimmerli, *Ezekiel 2*, 249.

40) Greenberg, *Ezekiel 21-37*, 730.

41) 웨슬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위언약’을 폐하고 ‘은혜언약’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장기영, “언약신학의 관점에서 본 웨슬리아 성결론: 한국 개신교의 개혁과 연합, 성숙을 위한 제안”, 『신학과 선교』 55(2019), 228-232.

또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새 영”(루아흐 하다샤/רוּחַ הַאֱלֹהִים)을 붙여넣음으로써 하나님의 율례에 순종할 수 있게 해줌을 말한다. “새 영”은 야훼의 영을 말하며 “인간에게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능력”⁴²⁾을 뜻한다. 야훼의 영이 그 수령자에게 임할 때, 우상숭배와 유혈 폭력과 같은 죄를 떠나 선과 의를 추구하도록 동력을 제공한다(cf. 시 143:10).⁴³⁾ 야훼의 영이 야훼의 의지에 순종하도록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각자의 내면이 도덕적 기준에 부합된 삶을 살게 될 것임을 말한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의한 인간 변화는 종말론적 현상 중의 하나다(을 2:28-29 [MT 3:1, 2]).

웨슬리는 “새 마음”을 세 가지 관점에서 언급한다. 첫째, 영혼의 새로운 틀이며 죄로부터 거룩으로, 육체적인 것으로부터 영적인 것으로 변화된 마음이다. 둘째,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진 마음이다. 셋째, 승리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가 지배하며 모든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방향을 튼 성화된 마음이다.⁴⁴⁾ 웨슬리는 야훼의 주도적인 개입에 의해 약속하신 “새 마음”을 영혼의 틀이 새로 짜여졌다고 말함으로써 과거와 단절된 근본적인 변화를 시사한다. 이 같은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재화를 통한 죄에서 자유한 마음, 곧 성화된 마음과 동일시 한다. 또한 웨슬리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말하는 “새 영”을 인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인간의 영 속에 있는 새롭고 거룩한 틀이라고 말한다. 인간의 영이 죄에서 벗어나 거룩해진 것이 성령이 개입하여

42) Zimmerli, *Ezekiel 2*, 249.

43) Greenberg, *Ezekiel 21-37*, 730.

44) Wesley, *Explanatory Notes upon the Old Testament*, 2385.

만든 새 틀에 의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웨슬리가 인간의 능력에 관한 낙관주의나 역사 안에서의 인간의 진보에 의한 변화를 낫설게 여기는 시각과 궤를 같이한다.⁴⁵⁾

웨슬리는 에스겔 36장 27절에 나오는 “내 영”을 하나님께서 진실 되게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셔서 내주하게 하시는 성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 이어 율례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는 것을 성령의 작용으로 해석한다. 성령은 부드럽고 강력하게, 그러나 결코 강요함이 없이 인간의 영에 작용하여 하나님의 영의 틀을 만들어 하나님의 거룩에 알맞은 특성을 가지게 한다고 해석한다.⁴⁶⁾ 이는 성령의 주도적인 개입에 의한 변화를 말하면서도,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적인 강제성을 배제하기에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판단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의 거룩한 변화, 곧 성화의 과정에 신인협동⁴⁷⁾의 역사가 있어야 온전함을 잘 보여준다.

넷째, 28절 전반부에서는 구원이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의 귀환과 연관됨을 말한다. 내면적인 변화에 대한 약속으로부터 외면적인 약속으로 바뀐다. 고향 땅으로의 귀환은 포로로 끌려가는 원인이었던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하나님의 “새 영”의 역사로 준수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야훼께서 자기 땅에서 영원히 거주할 수 있게 될 것임을 약속한다.

다섯째, 28절 후반부에서는 구원의 현실을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언약 공식을 통해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45) Oden, *John Wesley's Teachings*, 285.

46) Wesley, *Explanatory Notes upon the Old Testament*, 2385.

47) 한영태는 이를 “복음적신인협동설”이라고 부르는데, 인간이 반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으로 회복된 자유 때문이라고 말한다. 한영태, “존 웨슬리의 성령론”, 『신학과 선교』 34(2008), 12-13.

회복으로 말한다. 하나님과 땅과 백성의 조화로운 관계가 현실화 될 것임을 말한다.⁴⁸⁾ 웨슬리는 이 같은 관계가 현재적으로 성취될 것이며, 신자가 누릴 행복의 토대임을 말한다.⁴⁹⁾ 종말론적 희망이 지금 여기서 현실화 될 수 있음을 말한다.

여섯째, 29절 전반부에서는 구원 약속을 부정한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제의적인 정결과 연관됨을 말한다. 부정은 거룩하신 아훼의 거처를 더럽힐 수 있기에 아훼와 분리된 상태를 의미한다. “구원”을 뜻하는 ‘야샤’(יָשָׁא)는 전치사 ‘민’(מִן/~로부터)과 함께 사로잡고 있거나 억압하고 있는 사람이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⁵⁰⁾ 그러나 사로잡고 있는 것은 적대적인 사람이나 세력이 아니라 자신들의 부정이다.⁵¹⁾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내면적인 정화, 곧 죄로부터 벗어나야 함을 말한다.

일곱째, 29절 후반부와 30절에서는 구원을 기근에서 자유로운 풍성한 수확으로 간주한다. 29절 전반부에서 내면적인 갱신을 다루었다면, 여기서는 기근으로부터 벗어나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외면적인 회복과 연관시킨다. 기근은 심판과 연관이 있다(겔 14:13, 21). 기근 때문에 자기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은 불행으로 간주된다(룻 1:1). 기근으로부터 벗어나는 외적 회복은 앞에서 언급한 내적 회복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땅의 풍요로운 상황은 연계되어 있다. 기근에서 벗어나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위하여 먼저 부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부정에서 벗어난 사람에게 땅은 풍성

48) Block, *The Book of Ezekiel Chapters 25-48*, 357.

49) Wesley, *Explanatory Notes upon the Old Testament*, 2385-2386.

50) Block, *The Book of Ezekiel Chapters 25-48*, 357.

51) 앞의 책, 357.

한 소출을 낼 것이기 때문이다. 땅의 생산성의 회복은 하나님과 사람과 땅 사이의 관계성이 회복된 자연스러운 결과다⁵²⁾ 고웬은 자연의 회복, 곧 땅이 풍요로운 수확을 거두어 영원히 기근이 사라지는 자연 회복을 인간과 사회 회복과 함께 세 가지의 주요 종말론적 변화라고 본다.⁵³⁾ 인간 회복과 인간의 물리적 조건인 자연 회복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29-30절에서 부정과 죄로부터의 해방을 물질적인 풍요와 연관시킨 것은 에스겔의 종말론이 이 세상에서의 인간과 자연, 영혼과 물질을 포함한 다면적인 차원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웨슬리는 29절 전반부에서 말하는 모든 부정으로부터의 구원을 칭의와 완전 성화와 영화를 포함하는 것으로 말한다. 30절에 대한 웨슬리의 주해가 없기 때문에 자연 혹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웨슬리의 입장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다만, 이 세상 속에서의 성화와 현재적 삶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긍정하는 웨슬리의 태도로 미루어볼 때,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긍정하였을 것이다.⁵⁴⁾

31-32절에서는 아훼의 구원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과거에 저지른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상기하고 자신의 죄에 대하여 거부감을 느끼게 될 것임을 말한다. 아훼께서 구원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때문이 아님을 강조하신다. 이스라엘의 과거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52) 앞의 책, 358.

53) Gowan, *Eschatology in the Old Testament*, 2, 101-103.

54) 이러한 관계에 대한 웨슬리의 긍정은 그 반대 경우에 대한 이해에 의해서도 파악하기 어렵지 않다. 웨슬리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과 동물은 물론 온 피조 세계와의 갈등 관계가 조성된 것으로 본다. 이는 웨슬리의 구원 개념에 인간과 자연과의 밀접한 관계가 전제돼 있음을 시사한다. 이용호, “구약의 렌즈로 고찰한 존 웨슬리의 인간 이해”, 『신학과 선교』 53(2018), 149.

자기 비난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야훼께서 은혜로 내외적 차원에서 우선 구원한 후에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이스라엘이 과거 행위를 기억하며 참회하고 뉘우치는 것을 말한다.⁵⁵⁾ 야훼의 은혜가 더 근원적인 것이며, 은혜로 이루어진 구원에 대한 반응으로서 기쁨과 환희 대신에 참회가 필요함을 말하는 것이다.⁵⁶⁾ 앞에서 말한 포로 귀환과 기근으로부터의 자유와 풍성한 수확은 야훼의 구원 약속이지만,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올바른 반응은 참회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같은 구원 약속을 주신 것은 더럽혀진 야훼 자신의 이름에 대한 관심에서 나왔다(21-23절). 설사 야훼의 자신의 이름에 대한 관심에서 나왔다 하여도 야훼의 은혜인 것은 틀림 없다. 그러므로 야훼의 은혜를 의식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과거 죄를 기억하며 부끄러워하고 한탄해야 한다. 에스겔 36장 31-32절에 대한 웨슬리의 주해는 없다. 그러나 웨슬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끌고 칭의와 성화를 가능하게 함을 말한다.⁵⁷⁾ 하나님의 은혜가 근원적인 차원에서의 전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하나님의 은혜와 이에 대한 인간의 응답으로서의 참회는 현재적 삶에서 신인협동의 과정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감을 여실히 보여준다.

3. 구원 약속의 성취를 통한 야훼의 주권 입증(겔 36:33-38)

새 영의 개입에 의한 새 언약의 시대에 성취될 하나님의 구원

55) Greenberg, *Ezekiel 21-37*, 732.

56) Zimmerli, *Ezekiel 2*, 250.

57) Oden, *John Wesley's Teachings*, 283.

약속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후에 그 구원 약속이 실제로 성취될 것임을 상세히 소개한다. 이를 통하여 열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입증하고자 한다.

33-36절은 성읍에 사람이 다시 거주하고 건물도 다시 건축되며 땅이 다시 비옥해질 때, 이를 통해 열국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게 되는 회복, 곧 사회적 차원의 종말론적 회복을 말한다.⁵⁸⁾ 땅과 거주지의 회복이 열국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됨을 말한다. 33절 전반부에서 신언인용공식(“주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을 언급한 후에 33절 후반부에서 35절까지 죄를 제거하게 될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거주하게 되는 구원이 실현되었을 때 사람들이 이 하는 말을 인용하며(35절) 마치 그 구원이 이미 성취된 것처럼 말한다. 33절에서 포로 귀환자들이 정주하여 황폐한 것이 다시 건축되는 외형적 구원 사건은 모든 죄악을 정결하게 하는 내면적 갱신의 때에 발생한다. 여기서의 “죄악”(아오노트/מַעַשׂ)은 윤리적 죄를 가리킨다.⁵⁹⁾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조치의 대상은 2인칭 복수 “너희”(33절 전반부)로 지칭되는 이스라엘 자손이다. 그 다음으로 33절 후반부와 34절에서는 야훼가 땅에 대하여 취할 조치를 말한다. 곧, 황폐한 땅이 경작됨을 말한다. 또한 34절에서는 이런 변화가 사람들에게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음을 말한다. 35절에서는 변화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이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을 빌어 언급된다. 35절에서 3인칭 복수형 동사를 통하여 “그들”로 표현되는 “사람들”은 34절에서 히브리어 ‘오베르’(אֹבְרִי/지나가는 사람)를 가리킨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36절의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들”과

58) Gowan, *Eschatology in the Old Testament*, 2, 122-23.

59) Jacob Milgrom, *Leviticus* 1-16, 25.

연관시켜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⁶⁰⁾ 웨슬리도 35절의 주어를 이방인들로 해석한다.⁶¹⁾ 이방인이 객관적으로 야훼에 의한 기적적인 변화를 증거해줄 것이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 속에 체결될 새 언약으로 인하여 인간, 사회, 자연의 변화가 가시화 될 것임을 말한다.

객관적으로 확인될 내용은 먼저 35절 전반부에서 황폐하던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됨에 있다. 다음으로, 35절 후반부에서는 성읍이 재건되어 주민들이 거주하게 됨을 말함으로써 기적적인 변화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한다. 뿐만 아니라, 36절 전반부의 확장된 야훼 인지공식(“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을 통하여 이방인이 야훼의 약속이 현실화될 것임을 확인해준다. 이로써 땅의 황폐함으로 인해 손상되었던 야훼의 거룩한 이름이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이스라엘 주민에 의해서,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 의해 땅과 성읍이 회복됨에 대한 증언은 “내가 이를 것이다”(36절)라는 야훼의 다짐에 의해 명확하게 확인된다. 객관적으로 증언되는 회복이 세상에 대한 야훼의 주도적 개입의 결과임을 분명히 해준다. 동시에 새 영의 역사로 대표되는 야훼의 주도적인 개입에 의해 재건과 재정착이 이 세상에서 실현 될 것임을 강조한다. 에스겔의 종말론적 회복의 실현이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서 시작되고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서의 전인적인 상황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웨슬리의 관점과 맥을 같이 한다.⁶²⁾

60) Zimmerli, *Ezekiel 2*, 250.

61) Wesley, *Explanatory Notes upon the Old Testament*, 2386.

62) Thomas C. Oden, *John Wesley's Scriptural Christianity: A Plain Exposition of His Teaching on Christian Doctrine*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4), 346; Lodahl, *God of Nature and of Grace*, 174.

37-38절은 사람이 다시 거주하게 되는 회복만 말한다. 여기서는 회복의 초점을 땅이 아닌 사람에게 맞춘다. 37절 전반부에서 신언인용 공식(“주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로 시작한다. 이전에는 야훼가 거부한 바 있으나(겔 14:3; 20:3), 여기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위해 자신에게 간구할 것을 허용한다.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 집이 자신들을 위하여 이것이 행해지도록 구해야 할 것이다”가 된다. 이는 야훼가 은혜를 베풀어 이스라엘 집을 위해 자신에게 간구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뜻이다. 야훼의 태도가 바뀐 것을 의미한다.⁽⁶³⁾ 그런 후에 37절 후반부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양 떼 같이 많아지게 할 것임을 말한다. 이는 앞에서 야훼께서 간구를 허용하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간구한 내용이 전쟁 후유증으로 줄어든 인구를 늘려달라는 것과 연관돼 있음을 말해준다. 사실, 자손 축복은 이미 아브라함 언약(창 17:2)과 시내 산 언약(레 26:9)에서 약속한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서 시사하듯이, 자손 축복은 새 언약 시대에 야훼의 은혜의 표징이기도 하다.

38절에 전반부에서는 제사를 위해 준비된 양 떼처럼 사람이 다시 거주하게 되는 유비를 언급한다. “제사 드릴 양 떼처럼, 곧 정한 절기의 예루살렘의 양 떼와 같이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떼로 채우리라”. “제사 드릴 양 떼”는 제사에 쓰이는 동물을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사람 떼”를 가리킨다. 제사에 쓰이는 거룩한 양 떼처럼,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⁶⁴⁾ 야훼는 자신을 위하여 수많은 거룩한 사람을 창조함으로써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 것이다.⁽⁶⁵⁾ 이는 이스라엘 안에서 확인될 수 있다. 예언자는

(63) Block, *The Book of Ezekiel Chapters 25-48*, 364.

(64) 앞의 책, 365.

열국과 이스라엘에 의해, 곧 양자 모두에 의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게 될 것임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38절 후반부에서 다시 한 번 인지공식(“그들이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를 통해 약속의 성취를 담보해주고 야훼만이 이를 행할 수 있다는 야훼의 주권적 통치를 확인해준다. 웨슬리는 38절에서 “거룩한 양 떼”, 곧 “사람 떼”가 숫자도 많지만, 질적으로도 최고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한다. 하나님께 헌신할 뿐만 아니라 산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상태라고 말한다.⁶⁶⁾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간구하게 한 결과로 얻는 “사람 떼”가 질적으로 변화된 사람들임을 말한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죄를 제거한 제물, 곧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점에서 웨슬리의 종말론적 희망이 현재적 성화로 구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V. 나가는 말

지금까지 에스겔 36장 16-38절을 주석함으로써 먼저 예언적 종말론의 특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종말론의 특성 분석과 함께, 새 시대에 이루어질 구원이 무엇이며 구원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새 시대에 이루어질 구원 약속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목적이 이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과 열국에 대한 야훼의 주권을 입증하는데 있음을 말하고자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에스겔 36장 16-38절에 대한 웨슬리의 주해서

(65) 앞의 책, 365.

(66) Wesley, *Explanatory Notes upon the Old Testament*, 2386.

(Explanatory Notes upon the Old Testament)에 근거하여 웨슬리가 종말론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알아보고 앞의 분석과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예언적 종말론’은 사후 세계나 사후 보상에 관심을 가진 ‘묵시적 종말론’과 달리, 이 세상에서의 변화, 곧 인간의 영적인 변화는 물론 그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와 자연의 변화까지도 포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인간의 죄의 제거를 통한 영적인 변화, 곧 성화가 종말론적 희망에 의해 견인됨을 보았다. 이 변화는 인간의 진보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의 적극적인 개입과 은혜에 의해 주도됨을 보았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의 차원에서 인간의 참회가 요구된다. 그런 점에서 신인협동에 의한 변화와 회복이라 할 수도 있다.

영적인 차원에서의 변화는 행동과 마음과 결부된 내외적인 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에스겔은 여기서 더 나아가 종말론적 구원과 관련하여 기근에서 벗어나거나 성읍과 건물의 재건이 이루어지는 외형적이며 물리적인 차원에서의 변화도 포함한다. 웨슬리는 이 같은 종말론적 변화를 성화의 관점에서 악한 행실이란 외면의 죄는 물론 내면의 죄된 욕망까지도 제거됨과 연결시킨다. 여기에는 성화의 과정이 그러하듯이 그리스도와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중심되는 위치를 차지한다. 그래서 웨슬리는 에스겔 36장 16-38절에 대한 기독교적 해석에 천착한다. 물론, 에스겔의 종말론적 변화는 공동체의 회복에 우선적인 초점을 두는 반면에, 웨슬리는 개인 회복을 강조한다. 표면적으로는 웨슬리의 개인 회복의 관점과 에스겔의 공동체 회복의 관점이 충돌한다. 그러나 에스겔의 종말론적 변화에도 “새 영”에 의한 개개인의 마음의 변화와 같이 개인 회복에 의해 설명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⁶⁷⁾ 이는 에스겔의 경우에도 개인 변화를 완전히 배제시킬 수 없음을 확인해준다.

에스겔은 죽은 후의 저 세상에서의 구원으로서의 종말론을 말하지 않는다. 웨슬리는 저 세상 차원에서의 구원을 말하면서도, 에스겔에 대한 주해에서는 오히려 이 세상 차원에서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시각을 뚜렷하게 드러낸다. 종말론적 구원을 통하여 현재의 삶속에서의 성화를 일구어 내는 것에 관심이 컸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에게 종말론적 변화가 저 세상 차원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 차원에서 죄에서 벗어나는 영적 변화 또한 못지 않게 강조되어야함을 말해준다. 더 나아가, 종말론적 구원과 관련하여 사회·자연 차원에서의 건강한 관계성 또한 경시될 수 없으며 인간 진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신인협동이 절대적으로 중요함을 깨닫게 해준다.

67) 질 미들마스, 『이스라엘의 무성전시대』, 홍성혁 옮김 (서울: CLC, 2018), 146.

참고문헌

- 문병구. “존 웨슬리의 『기독교의 완전성에 대한 해설』에 나타난 완전성화의 성서적 기초.” 「신학과 선교」 52(2018): 121-149.
- 이용호. “구약의 렌즈로 고찰한 존 웨슬리의 인간 이해.” 「신학과 선교」 53(2018): 139-172.
- 장기영. “자유 의지와 노예 의지, 그 분기점으로서 웨슬리의 선행은총론.” 「신학과 선교」 45(2014): 137-182.
- . “언약신학의 관점에서 본 웨슬리아 성결론: 한국 개신교의 개혁과 연합, 성숙을 위한 제안.” 「신학과 선교」 55(2019): 201-249.
- 최형근.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에서 본 존 웨슬리의 선교신학.” 「신학과 선교」 43(2013): 127-155.
- 한영태. “존 웨슬리의 성령론.” 「신학과 선교」 34(2008): 1-17.
- 홍성혁. “요엘4장의 묵시적 종말론 모티프와 그 기능: 아웨의 시온 통치를 통한 새 세상 도래 부각.” 「구약논단」 52집(2014): 186-216.
- . “예레미야 31장 23-40절에 나타난 새 언약과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일 이상.” 「선교와 신학」 46(2018): 451-483.
- D. S. 러셀. 『하나님의 계시: 유대묵시문학개론』. 홍성혁 옮김. 서울: 제라서원, 2012.
- 오톤 와일리, 폴 컬버튼. 『웨슬리안 조직신학』. 전성용 옮김. 서울: 도서출판 세복, 2002.
- 존 J. 콜린스. 『묵시문학적 상상력: 유대 묵시문학 입문』. 박요한 영식 옮김. 서울: 가톨릭 출판사, 2006.
- 질 미들마스. 『이스라엘의 무성전시대』. 홍성혁 옮김. 서울: CLC, 2018.
- Allen, Leslie C. *Ezekiel 20-48*. WBC 29. Dallas: Word Books, 1990.
- André, G. “tame; tum’a.” *TDOT* 5 (1987): 330-342.
- Block, Daniel I. *The Book of Ezekiel Chapters 25-48*. NICOT.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8.
- Collins, J. J. ed. *Apocalypse: The Morphology of a Genre*. Semeia 14. Missoula, MT: Scholars Press, 1979.
- Cook, Stephen L. *Prophecy & Apocalypticism: The Postexilic Social Setting*.

-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 . *The Apocalyptic Literature*. Nashville: Abingdon Press, 2003.
- Cooper, Lamar Eugene, Sr. *Ezekiel*. NAC. Vol. 17.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4.
- Dyrness, William. *Themes in Old Testament Theology*.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77.
- Gowan, Donald E. *Theology of the Prophetic Books: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Israe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8.
- . *Eschatology in the Old Testament*. Edinburgh: T. & T. Clark, 1987.
- Greenberg, Moshe. *Ezekiel 21-37*. AB. 22A. New York: Doubleday, 1997.
- Hals, Ronald M. *Ezekiel*. FOTL. Vol. 19. Grand Rapids: W. B. Eerdmans, 1989.
- Jenni, E. "Eschatology of the OT." *IDB* 5 (1962): 126-33.
- Lindblom, J. *Die Jesaja-Apokalypse Jes. 24-27*. Hakan Olssons Buchruckere, 1938.
- . *Prophecy in Ancient Israel*.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62.
- Lodahl, Michael. *God of Nature and of Grace: Reading the World in a Wesleyan Way*. Nashville: Kingswood Books, 2003.
- Milgrom, Jacob. *Leviticus 1-16*. AB. New York: Doubleday, 1991.
- Mowinckel, S. *He that Cometh*. Translated by G. W. Anderson. New York: Abingdon Press, 1954.
- Nickelsburg, G. W. E. "Eschatology (Early Jewish)." *ABD* 2 (1992): 579-94.
- Oden, Thomas C. *John Wesley's Scriptural Christianity: A Plain Exposition of His Teaching on Christian Doctrine*.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4.
- . *John Wesley's Teachings*. Vol. 2: Christ and Savation. Grand Rapids: Zondervan, 2012.
- Pohlmann, Karl-Friedrich. *Ezechielstudien: Zur redaktionsgeschichte des Buches und zur Frage nach den älteren Texten*. Berlin: de Gruyter, 1992.
- Renz, Thomas. *The Rhetorical Function of the Book on Ezekiel* (Leiden: Brill Academic Publishers, 2002).

- Reventlow, H. G. "The Eschatologization of the Prophetic Books: A Comparative Study. Pages 169-88 in *Eschatology in the Bible and in Jewish and Christian Tradition*. Edited by H. G. Reventlow. Sheffield:Sheffield Academic Press, 1997.
- Routledge, Robin. *Old Testament Theology: A Thematic Approach*. Downers Grove: IVP Academic, 2008.
- Russell, D. S. *The Method & Message of Jewish Apocalyptic*.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4.
- Simian, H. *Die theologische Nachgeschichte der Prophetie Ezechiels*. Würzburg: echter Verlag, 1974.
- Sweeney, Marvin. *Reading Ezekiel: A Literary and Theological Commentary*. Smyth & Helwys Publishing. Amazon e-book, 2013. Loc 3464-3554. Accessed 31 July 2019.
- Uffenheimer, B. "From Prophetic to Apocalyptic Eschatology." Pages 200-217 in *Eschatology in the Bible and in Jewish and Christian Tradition*, ed. H. G. Reventlow. Sheffield:Sheffield Academic Press, 1997.
- Wesley, John. *Explanatory Notes upon the Old Testament*. Salem: Schmull Publishers, 1975.
- Williams, Colin W. *John Wesley's Theology Today: A Study of the Wesleyan Tradition in the Light of Current Theological Dialogue*. Nashville: Abingdon Press, 1960.
- Zimmerli, Walther. *Ezekiel 2: A Commentary on the Book of the Prophet Ezekiel Chapters 25-48*. Hermeneia.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3.

■ *Abstract*

Understanding Eschatology in Wesley's Interpretation of
Old Testament Prophecies: Centering on Ezekiel 36:16-38

Hong, Seong Hyuk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Old Testament Theolog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not only to examine the meaning of eschatology for u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prophetic eschatology on the basis of the commentary of Ezekiel 36:16-38, which is categorized into a text containing prophetic eschatology, but also to compare Wesley's interpretation of this text. Wesley's interpretation of Ezek. 36:16-38 will be based upon Wesley's *Explanatory Notes upon the Old Testament*. No comparative study of its meaning of the eschatological texts such as Ezek. 36:16-38 has been attempted so far.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which is intended to show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haracteristic elements of Old Testament eschatology and Wesley's understanding of eschatology, is of sufficient significance.

First of all, I will suggest that eschatology is divided largely into prophetic eschatology and apocalyptic eschatology. While apocalyptic eschatology focuses primarily on other-worldly matters like the world after death and the reward of the dead, prophetic eschatology is more concerned with issues such as Atonement in the present world rather than the reward in the other world. Next, through the

commentary on Ezek. 36:16-38, which is categorized as prophetic eschatology, I will analyze the main features of salvation in prophetic eschatology. I will say that Yahweh poured out his wrath against Israel because of such sins as bloody violence and idolatry that defiled the earth. However I will assert that in the new age of 'New Spirit', God actively intervened to fulfill His promises of salvation through overcoming the unclean reality of having profaned the holy name of Yahweh by the exiled Israelites.

I will further say that the book of Ezekiel describes the contents of the promise of salvation which will be fulfilled in the new age in seven points. Through the work of the 'New Spirit', Yahweh promises to eliminate external sins like violence and idolatry as well as internal sins. Although Wesley focuses on the matter of sin on a more personal level than communal level, he, in his *Explanatory Notes upon the Old Testament*, connects to the concept of sanctification the spiritual restoration, or the removal of sin based on a christological point of view. Namely, he relates spiritual restoration to the condition of eliminating inner sinful desires as well as evil deeds. Just as Ezekiel says Yahweh is actively involved in restoration, Wesley states that the grace of Christ and the work of the Holy Spirit plays a central role in the process of sanctification, not human maturity or progress. In addition, as Ezekiel emphasized that eschatological salvation is realized by synergism of divine active intervention and human repentance, Wesley also emphasized that the human response to the grace of Christ in the process of sanctification is quite necessary.

The salvation Ezekiel mentioned is not restoration in the other

world but communal and personal restoration in this world. Wesley also states that sanctification is not a condition that can be attained in the afterlife, but is accomplished through incremental process that begins in this life. Finally, I will assert that Ezekiel focused not only on spritual restoration but also on the restoration of the macroscopic dimension, such as the restoration on the social and natural level. Ezekiel basically spoke of the restoration of the community. He further showed that the restoration of man includes restor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arth and man, man and God. This is the same position with Wesley who made a point of the social dimension of sanctification. In this way,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a new perception of Wesley's eschatological interpretation, notwithstanding the existence of a gap between communal and individual dimension, by confirming a sigificant correspondence between the prophetic eschatology of the Old Testament and Wesley's eschatological interpretation of Ezek. 36:16-38.

주제어

묵시적 종말론, 예언적 종말론, 새 언약, 성화, 신인협동, 구원,
하나님의 은혜

Apocalyptic Eschatology, Prophetic Eschatology, New Covenant,
Sanctification, Soteriological Synergism, Salvation, Divine Grace

* 논문투고일 2019. 08. 01. 심사완료일 2019. 09. 03. 게재확정일 2019. 09. 27.